

# 프라임경제

## 진천 서전고, 충북서 세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기사입력 2019.03.30 16:08:52 | 최종수정 2019.03.30 16:08:52 |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mailto:gptjd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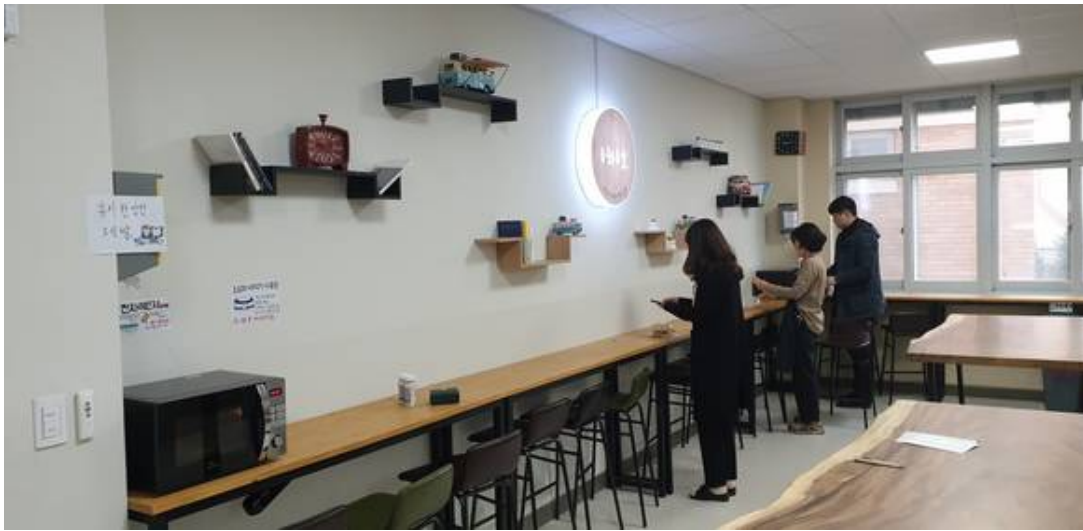
[프라임경제] 충북 진천서전고등학교(교장 한상훈)가 '서전고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상희) 설립 인가를 마치고,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서전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동안 협동조합 동아리 '서큘가온'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 발기인 모집 및 5차례의 협의회,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등을 추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전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8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앞으로 한 달간 학부모 교육, 조합원 모집, 학부모 대상 시식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25일 정식으로 개점할 예정이다.

안상희 이사장은 "학교 협동조합 'ㅎ하ㅎ호' 매점은 이용자가 곧 운영자이기 때문에 매점 판매 상품과 가격을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큘가온'을 이끌고 있는 김은서 학생은 "매점의 수익은 학생의 장학금, 학교시설 개선 등 학생 생활 복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전고등학교는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인1표제 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나아가 살아있는 생생한 경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전고 협동조합 동아리 '서큘가온'은 지난해 3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부를 시작으로, 설립 작업과 관련한 설명회,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준비 협의회 등을 거쳐 지난해 9월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안상희 학부모를 1대 이사를 선임했고, 법적인 인가를 위해 '사람과 경제'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설립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3월18일 사업자 등록을 끝으로 설립 절차를 마쳤다.

오영태 기자 ([gptjd00@hanmail.net](mailto:gptjd00@hanmail.net))

Copyright © 2005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